

#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鄉約

鄭 震 英\*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2) 학문적 특징 : 躬行實踐學 |
| 2. 崔氏家의 사회경제적 기반   | 4. 백불암의 鄉約        |
| 1) 世系              | 1) 향약실시의 배경       |
| 2) 경제적 기반          | 2) 향약의 내용         |
| 3.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     | 3) 향약을 둘러싼 문제     |
| 1) 師承과 交遊, 그리고 제자들 | 5. 맺음말            |

## 1. 머리말

백불암 최흥원(1705년 : 숙종 31~1786년 : 정조 10)은 자를 太初. 汝浩라 하였고, 초호를 數咎庵이라 하였다가 만년에는 百弗庵이라 하였는데, 흔히 '漆溪先生'으로 불리어 지기도 하였다. 그는 18세에 생원초시에 합격하였으나 25세에는 과거공부를 단념하고 평생을 대구 팔공산 칠계에서 은거하면서 영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조차도 없었으며, 건강 또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백불암은 학문적으로 大山 李象靖(1710~1781), 南野 朴遜慶(1713~1782)과 더불어 '嶺南三老'로 추앙되면서 영남의 유림사회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었다.<sup>1)</sup> 더욱이 백불암은 단순히 理氣說에만 매몰되어 있던 학자

\* 東明情報大學校

1) 《百弗庵先生言行錄》 권 2, 〈墓誌銘〉(安鼎福 撰) 80쪽. (1999년 대구 大譜社 영인본, 이하 《언행록》이라 한다.) “挽近來儒風少衰 公及大山南野 又繼武而起 世稱嶺南三老”

가 아니라 '經濟之士'로 평가되기도 하였다.<sup>2)</sup> 경제지사란 나라를 경영하고 민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선비를 의미한다. 이것은 향촌의 이름 없는 선비가 아니라 당대의 학자요 정치가였던 順庵 安鼎福과 樊巖 蔡濟恭의 평가였다.

백불암이 살았던 18세기는 한편에서는 양반중심의 사회 체제에 많은 병폐가 보다 본격적으로 露見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전면에서 새로운 기운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말하자면 과도기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때일수록 체제의 안정은 더욱 절실하기 마련이었다. 개혁과 혁신이 백성들의 요구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의 주장이라면, 체제의 안정은 지배층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생존의 문제였다. 이러한 시기에 백불암에게 쏟아진 학문적 기대와 '經濟之士'로서의 평가는 단순한 空致辭가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대가 그를 필요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백불암은 도대체 무엇을 닦았기에 이러한 기대와 평가를 받는 것일까?

小山 李光靖은 〈行狀〉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효성(孝誠)'일 뿐이라고 하였다. 효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백불암이 영달을 위한 '口耳之學'에 급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躬行實踐'하는 유학자였음을 의미한다. 소산은 나아가 공이 실시한 향약을 통해 '經濟의 대강'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3)</sup> 말하자면 백불암의 학문이 단순히 가정과 학문의 차원을 벗어난 사회적인 실천이었음을 의미한다.

백불암은 夫仁洞에서 향약을 실시하였다. 향약은 조선시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향촌의 선비들에 의해 즐기치게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의 실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향약을 통해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즐기치게 시도된 이유라면, 양반사회의 분열과 농민들의 저항은 그것의 실시를 그만큼 어렵게 만들었다.

2) 《言行錄》 권 5, 〈雜記〉 330쪽. "樊巖蔡相公濟公 嘗曰 --- 曾見李相公秉模 退朝言 自上求學行經濟之士 漆溪丈 若在正合上意 而九原難作云"

3) 《言行錄》 권 2, 〈行狀〉 (李光靖 撰)

백불암에 의해 실시된 부인동의 향약은 한번 시도된 것은 아니라 100여 년 넘는 기간동안 계속되었다. 국왕 正祖는 稱賞과 함께 수 차에 걸쳐 벼슬을 내렸고, 方伯과 원근의 선비들은 그 遺風善俗을 보기 위해 來訪하였다. 백불암의 향약은 '嶺南三老'로서 추앙되고 있던 그의 학문적 명성과 더불어 朝野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백불암의 실천적 학문과 향약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선행의 연구도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백불암의 향약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이거나,<sup>4)</sup> 학문과 사회경제사상의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sup>5)</sup> 이 연구는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백불암의 향약을 학문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기로 한다.

## 2. 崔氏家の 사회경제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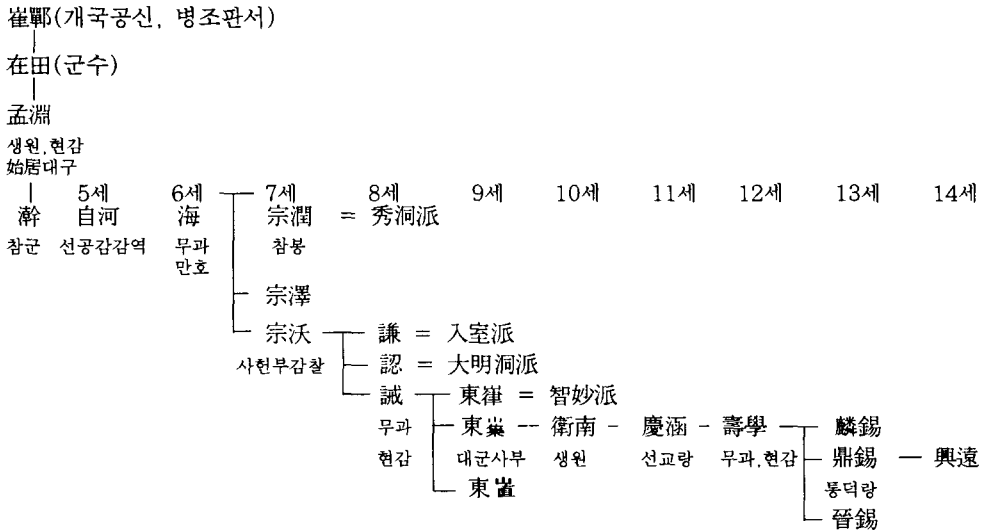
### 1) 世系

백불암의 가계는 경주최씨 匡靖公派에 속한다. 우선 《족보》를 통해 선대의 세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6)</sup>

4) 정진영, 1982, 〈조선후기 鄉約의 一研究 - 夫仁洞洞約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2.3합집; 1990, 〈18,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5) 하영희, 1990, 〈최홍원의 학문과 사회경제사상〉 서강대 석사논문

6) 《慶州崔氏匡靖公派大譜》 1993년 간



광정공파가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백불암의 11대조인 孟淵으로부터 비롯한다. 맹연은 맹산현감을 지냈으나 만년에 중앙관직에서 밀려나자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은 지묘동, 도동, 옷골 등지에 세거하게 되었다. 맹연은 대구로 이거하기 이전에는 강화도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513년 맹연의 또 다른 아들 澄의 <司馬榜目>에 거주지가 강화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연이 어떠한 관계로 대구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이후 맹연의 후손은 대구를 세거지로 하여 비록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중앙 또는 지방관으로 꾸준히 진출하고 있었다.

백불암의 6대조인 誠(1567-1622)는 호를 台洞이라 하였고, 무과출신으로 임진왜란시에 招諭使인 鶴峰 金誠一로부터 大丘義兵假將에 임명되어 활동한 공로로 宣武2等功臣에 봉해지고 곧이어 만경현령이 되었다. 그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3년만에 遞職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그의 출신이 무과라는 문제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己酉年(1609)에 교체되어 돌아와서는 개연히 武에서 文으로 바꾸려는 뜻을 가지시고 여러 아들에게 엄격히 공부를 시켰는데, 先壘 곁에 집을 짓고 義田을 설치하고 책과 양식을 갖추어 義理를 강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

도록 글을 써서 거듭 경계하였다.”<sup>7)</sup>

그래서 武를 文으로 바꾸고자 하여 書室을 짓고 義田을 갖추어 자제들의 공부를 독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아들은 寒岡 鄭述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生進科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란에 창의하였다는 사실은 경주 최씨가 향촌사회에서 이미 확고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최씨가 이미 누대로 文武班을 통해 벼슬에 나아갔다는 사실과 家僮과 곡식을 내어 창의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유사로부터 의병가장에 임명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崔誠가 무과출신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씨는 문반으로도 진출하고 있었지만, 무과출신도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어쩌면 가문적으로 무과에 보다 친숙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령에서 遞職 되자 武를 文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것, 또는 백불암이 가문의 분위기를 “俠氣와 霸術만을 익혀서 儒家의인 풍미가 전혀 없었다”<sup>8)</sup>고 슬회한 것 등에서 이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무튼 台洞公의 의병가장으로서의 활동, 자제들에 대한 교육에의 열정 등은 이후 최씨의 성장과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5대조 東嶽(1586-1661)은 台洞 誠의 둘째 아들로 호를 臺巖이라 하였고,

7) 《百弗庵先生文集》 권 8, 〈六代祖縣令府君墓碣〉(이하 《문집》이라 표기한다)  
백불암의 문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하는 데 모두 목판본이다. 하나는 《문집》 14권과 《문집부록》 4권으로 구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집》 8권과 《언행록》 7권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인문화사에는 전자를 影印하여 《백불암선생문집》(한국역대문집총서 179, 180) 2책으로 발간하였으나 《문집부록》이 수록되지 않았고, 宗中에서는 후자를 影印하여 《백불암선생문집》과 《백불암선생언행록》 각 1책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宗中 영인본을 주 자료로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경인문화사본’, 또는 《문집부록》으로 표기하여 이용한다.

8) 《文集》 권 14, 〈平居講語〉 546-547쪽. (경인문화사본)

“嘗謂興壁曰 吾族自來以食粟樹立門戶 ○○此間埋沒 習尚氣象 帶得俠氣霸術 專欠了儒家意味 某自初年覺得如此 必欲矯揉 而德量氣力不足以挽回 近與君輩○○講說 只爲變食粟而謹文學 棄俠氣而敦儒雅 使此門○不至於埋沒 ……”

30대의 초반에 옷골에 처음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寒岡 鄭述의 문인이 되고 進士試를 거쳐 學行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가는 鳳林大君의 師傅에 임명되었으나 도중에 교체되고 명나라가 망하자 夫仁洞에 蠶淵亭을 지어 隱居하면서 제자를 가르치고 동민의 教化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崇禎處士'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대암이 부인동에 은거하였던 것은 泉石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팔공산 중턱 부인사 아래에 해당하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심한 가뭄에도 마르는 법이 없어서 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있었다. 대암은 이곳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암은 네 아들을 두었으나, 맏아들 衛南의 자손만이 옷골에 세거하고 나머지 자손은 모두가 외지로 나갔다.

祖 壽學은 무과출신으로 사헌부 감찰을 거쳐 광양현감을 지냈으나, 전라도 운봉에 귀양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는 맏아들인 麟錫의 부부가 無後한 채로 요절하자 둘째 아들인 정석에게 承重하여 宗統을 잇게 하였다. 다음은 수학이 작성한 承重文記이다.

〈鼎錫處承重文記〉…… 슬프다. 麟錫 夫婦가 불행히 서로 연이어 죽으니 나의 슬픈 정이 어찌 특별히 죽음만을 슬퍼할 따름이겠느냐. 代를 이을 아들이 無後로 죽었으니 어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鼎錫)의 아들을 인식이의 뒤를 계승하게 하여 宗嫡을 잇게 함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너의 네 아들 중 큰놈이 아직 젖먹이이고 나의 병은 고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累代의 제사를 결코 어린아이에게 맡기기 어렵다.…… 슬프다. 뒤를 이어 宗을 잇는 것이 비록 고금의 常經이나, 兄亡弟及 또한 모든 집에서 통행하는 것이니 내가 너(정석)로서 宗으로 삼는 것은 人情으로서 부득이한 것이다. 이제 너에게 宗을 돌리니 너는 이 뜻을 잘 받들어 나를 이어 宗祀하고, 너의 셋째 아들을 죽은 인식의 後로 삼아 次子例에 따라 시행하라. 1713년 12월 13일<sup>9)</sup>

이 당시 수학은 유배된 처지에서 병을 얻었고, 또 맏아들 부부가 연이어 요절하자 둘째에게 宗통을 계승하게 하여 누대의 제사를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유서로 남기고 있다. 아무튼 백불암의 부 鼎錫은 兄亡弟及이라는 형

9) 宗宅所藏 자료

식을 통해 종통을 계승하였고, 또한 이러한 형식이 당시까지에도 낫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2) 경제적 기반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이다. 그리고 대체로 토지와 노비의 규모는 비례한다. 물론 16세기까지는 노비가, 18세기 중반이후에는 토지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최씨의 경제적 기반을 《大丘府戶籍大帳》을 통해 소유노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표 1〉 경주최씨의 노비 소유

년도	거주지	통호	직역	이름(나이)	소유노비	
					수	비고
1681년 (숙종 7)	해동촌 신달리	27-2	선교랑	최경함(59)	87	노 52, 비 35 (自作戶 34, 양역 31, 居 7, 去 2)
1684년	해서부촌 지묘리	17-3		崔慶涵(62)	86	各戶 3, 去 17, 故 3, 逃 11, 立戶 21, 仰役 20, 子戶來 3, 불명 8
1690년	의성산운 다정리		선교랑	최경함(68)	58	노 38, 비 20 (各戶 20, 양역 6, 도망 19, 거 8, 호거 3, 故 1, 病廢 1)
1696년	해동촌 상동리	2-5	선략장군행용 양위부사과	崔壽學(45)	55	去 17, 도 2, 양역 36
1705년 (숙종 31)	해동촌 상동리	2-2	통훈대부전사 헌부감찰	崔壽學(54)	157	노 82, 비 75 (居 11, 逃 17)
1717년	해서부촌 신기리		통덕랑	崔鼎錫(40)	70	노 41, 비 29 (居 8, 逃 2)
1738년 (영 14)	해서부면 구성리	6-3	통덕랑	崔興源(34)	149	노 79, 비 72 (양역 등 71, 거 59, 도망 17, 고 2)
1747년	해서부면 구성리	4-5	통덕랑	최홍원(43)	162	노 81, 비 81 (양역 등 86, 외거 59, 도망 17, 고 2)
1750년	해북촌면 중산리	6-5 (新戶)	통덕랑	崔興原(46)	128	노 64, 비 64 (양역 37, 居 58, 도 24)
1777년 (정조 1)	해북촌 중산리	4-5	통덕랑	崔興遠(73)	129	노 60, 비 69 (양역 11, 외거 57, 도망 28, 故 2, 불명 31)

10) 《대구부호적대장》(규장각 소장 자료) 참조.

최씨의 노비는 시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17세기에는 90여 명에 가까운 규모였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150 - 160여 명에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히 축소된다.

이들 노비 중에는 최씨의 주위에서 家事와 營農에 종사하는 솔거노비가 대체로 20 - 30여명이 있었으며, 또 이 정도의 노비들은 늘 도망한 상태였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는 해마다 주인가에 身貢이라는 이름으로 布 1-2필 정도를 납부하는 외거노비들이었다. 외거노비들의 거주지는 경상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표 2〉 백불암 소유 외거노비의 거주지

년 도	합계	거 주 지
1738년	59	서울 1, 경주 6, 성주 26, 연일 7, 장기 7, 합천 3, 읍내 2, 의성 2, 안동 1, 기타 4
1747년	61	경주 12, 성주 22, 연일 4, 영천 2, 읍내 4, 합천 6, 해서촌 5, 의성·안동·밀양 각 1, 기타 3

최씨가 소유한 이 정도의 노비는 당시 명문의 양반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비소유와 함께 토지 또한 많았을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노비와 토지는 결국 의병을 창의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기반이었고, 백불암이 龔淵亭을 중건하고, 報本堂을 짓고, 學舍와 祭田을 마련하거나 內외의 族親들을 구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는 다른 궁핍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가령, 아들에게 준 편지에 “家計가 궁핍하고 식량이 모자란다”<sup>11)</sup>거나, 家事에 얽매이거나 가난을 근심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道를 닦았으면 좋겠다<sup>12)</sup>는 표현 등

11) 《문집》 권 10, 서, 〈答周鎮〉 436쪽. “家計日寒 糧道每乏 雖不欲動念 亦難矣 然既不可以致祿 則惟當以義理爲糧 不忘溝壑可也”

《언행록》 권 4, 〈律身 : 朴鼎洛〉 241쪽. “家計清寒 簞瓢或空 而裁省冗費 量入爲出”

12) 《문집》 권 1, 시, 〈謹次忘窩族大父韻〉 47쪽. “何時居靜域 謀道不憂貧”



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당시 상당한 田民을 소유하고 있었던 양반가문의 일반적 인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농업이 사소한 자연재해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농업환경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장 궁핍하게 생활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하거나 양반가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 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양반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양반들의 문집에서 볼 수 있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만한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생활했다고는 할 수 없다. 검소한 생활은 선비로서의 당연한 일상이었고, 낮은 농업생산성에 비해 奉祭祀와 接賓客 등에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적 기반 없이 양반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에서 양반들 또한 治産과 治家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농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영농의 전반에 걸쳐서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백불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위의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최씨가거의 거주지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대암 이후로 칠계에 世居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의 거주지 이동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백불암이 1750년에 解北村 中山里(부인동)로 옮겼던 것은 향약실시와 관련한 호적상의 이동일 뿐, 실제의 거주지는 여전히 칠계(행정구역상으로는 上洞里)였던 것이다.<sup>13)</sup>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최씨의 빈번한 거주지 이동은 실제 거주지의 이동이라기 보다는 호적상의 이동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빈번한 이동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백불암 이후 中山里(부인동)으로의 이주 이외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

13) 정진영, 1990 위 논문 참조.

럽다.

아무튼 최씨가는 당시 양반 명문가문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백불암이 처사적인 삶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百弗庵의 學問

#### 1) 師承과 交遊, 그리고 제자들

백불암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뚜렷한 스승을 두지 못하였다.<sup>14)</sup> 11세에는 고모부 李柱崇(벽진인)으로부터 19史를 배웠고, 15세에는 서당에서 공부하였으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공부에 실망하여 이듬해에 그만 두었다. 이후로는 스승이 없이 오직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이 같은 사정은 그가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曹善迪의 문하에서 공부하던 동생으로부터 小學 大學의 공부순서와 朱子讀書法이라는 공부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에서도 짐작된다.<sup>15)</sup> 이 같은 사정을 순암은 “스승없이 학문을 이어, 초연히 홀로 깨우쳤네.”라고 노래하고 있다.<sup>16)</sup>

백불암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숙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退溪 李滉과 晦齋 李彦迪, 곧 退溪學派 또는 嶺南學派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가 안동을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대표적인 학자들과 널리 교류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즉, 36세에는 안동의 柳聖和(호 서호)와 權渠(호 屏谷)를 방문하고, 전라도 광양에 유배 중이던 金聲鐸(호 霽山)

14) 《언행록》 권 4, 〈學問：李鏞〉 167쪽. “吾少無師承 惟私淑諸人”

15) 《문집》 권 14, 〈平居講語〉 487쪽.(경인문화사본) “此地無師友 未聞入學路頭 叔君從曹公善迪遊歸 傳小學大學次第 卽取而讀之 乃略知其方 得朱子讀書法 所謂字字句句 須要體察等語 忽有省焉”

16) 《언행록》 권 2, 〈墓誌銘〉 (安鼎福 撰) 98쪽.

을 찾아갔으며, 46년에는 평생의知己 李象靖을 만났으며, 39세와 42세에 각기 경주의 玉山書院(회재 이언적 배향)과 안동의 陶山書院(퇴계 이황 배향)을 參拜했던 것이다.<sup>17)</sup> 사실 이들 가문과는 이미 姻婭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교류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문집에 수록된 편지를 통해서도 백불암의 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문집>에는 문인과 종친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40여 명과의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백불암이 벼슬은 물론이고 영남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정에서 교류관계는 폭넓은 것이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인물은 星湖 李瀼과 樊巖 蔡濟恭이다. 이들은 近畿의 南人들로서 당시 학문적 또는 정치적으로 嶺南南人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백불암은 이들과 서로 만나서 교류한 적은 없고 다만 자제를 보내 문안하거나 선조의 문자를 얻기 위한 편지의 내왕만이 있었을 뿐이다.<sup>18)</sup> 따라서 학문상의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백불암이 가장 절친하게 交遊했던 사람은 大山 李象靖과 小山 李光靖, 그리고 恥齋 曹善迪 등이었다. 이들과의 편지는 각기 70, 12, 6통이 수록되어 있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백불암은 이들과 편지의 내왕만이 아니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학문을 토론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상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산은 密庵 李裁의 외손자로 퇴계의 학통을 이은 嫡傳으로 당시 영남의 유림을 영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대산의 문집에는 백불암에게 보낸 편지 40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산과 백불암의 관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제들과의 중첩적인 師承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백불암의 자제인 崔思鎭·尙鎭·恒鎭 등이 대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대산의 자제인 李堦·李堦·李堦과 李秉鐸·李秉進·李秉遠 등이 백불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백불암은

17) 《연행록》 권 1, <年譜> 참조.

18) 《문집》 권 2, 서 <與李星湖瀼 : 癸未>(67쪽); <與蔡尙書濟恭 : 甲辰>(74-76쪽) 참조.

대산의 訃告를 접하고 크게 슬퍼하여 3개월간 素服하고 帶를 벗지 않았으며,<sup>19)</sup> 대산 역시 소산이 회고하듯이 “가장 깊이 마음을 기우려 사귄 사람”<sup>20)</sup>은 다름 아닌 백불암이었고, 임종에서도 백불암의 안부를 물었다는 사정은 이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치제 조선적과의 관계 또한 대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치제의 본관은 창령이며, 영천에 거주하였고, 屏窩 李衡祥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치제의 문집에는 백불암에게 준 편지가 14통이 수록되어 있다. 백불암은 아들 周鎭에게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도록 하였고, 백불암의 문인이었던 曹德臣·曹學臣은 치제의 아들이었다.

백불암·대산과 더불어 ‘嶺南三老’로 추앙되었던 南野 朴遜慶(1713-1782)은 예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거리상 서로 상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영남 남인으로서의 정치적 또는 학문적인 동류의식과 간접적인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 같은 사정에서 남야의 종손자인 朴漢倬이 백불암의 손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외에도 백불암이 교유하였던 인물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南村 宋履錫, 黃鶴 李春植, 雲齋 李命天, 梅軒 宋命基, 松窩 安命夏, 式好 鄭燁, 剛窩 任必大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당대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었다. 그리고 안으로는 陸窩公(최홍건)과의 講討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 《연행록》 권 1, 〈年譜 : 正宗 5년 12월〉 47쪽. “大山訃至位哭之 : 爲之服素帶三月”

20) 《연행록》 권 5, 〈交際 : 鄭宗魯〉 301쪽. “小山嘗有書 曰家兄平日交遊者 雖衆也 其傾心馳嚮 悠久而深切者 獨於座下一人而已”

21) 《문집》 권 5, 서 〈與金直甫〉 499쪽. “日昨得愚山書 南野又忽棄世 吾黨之運 一時至此 已極痛愕”

〈표 3〉 백불암의 교류관계

년도	나이	交遊關係			
		이름	자	호	비고
1736	32	曺善迪	仲吉	恥齋	來訪함(1737년, 아들 周鎭에게 문하에서 배우게 함)
1737	33	宋履錫	伯綏	南村	내방
1738	34	조선적			내방
1739	35	李春植		黃鶴	내방하여 太極圖說을 강론
1740	36	柳聖和		西湖	안동 河上에 가서 찾아 봄
		權 槩		屏谷	안동 枝谷에 가서 찾아 봄
		金聖鐸		霽山	光陽 配所에 가서 찾아 봄
1741	37	李命天	性中	雲齋	내방
		宋命基		梅軒	梅南에 가서 만나 봄
1743	39	安命夏		松窩	내방하여 禮에 대해 논의함
					경주 玉山 體仁祠 참배, 雪川亭의 士友와 강론
		鄭 燁	汝章	式好	霞谷에 가서 만나봄
1745	41	任必大	重徵	剛窩	내방하여 家禮와 小學 등을 강론
1746	42				陶山 尙德祠 참배, 인근 名士와 더불어 유람
		李象靖	景文	大山	五美洞에 가서 만남
		李光靖 조선적	休文	小山	함께 理氣說을 강론함
1747	43	임필대			퇴계문집을 강론
		최홍건		陸窩	함께 理學通論을 강론함
1748	44	이상정 조선적			내방하여 소학과 대학을 강론함
		이상정			함께 팔공산을 유람하고 부인사에서 심경 강론
1749	45	권 구			뫼함
		이상정			부친상에 조문함
1750	46	최홍건		陸窩	함께 性理大全, 中庸을 강론함
1751	47	이광정			내방
		李 翼		星湖	아들 주진에게 安山에 가서 찾아 뵈게 함
		이상정			조카 思鎭·尙鎭에게 大山의 문하에 從學케 함

1753	49	李光庭		訥隱	아들 주진에게 鹿門에서 찾아뵙게 함
		이상정		소산	내방하여 팔공산 유람
1754	50	정 엽		식호	내방함
		이상정		대산	내방함(2월), 府邸에서 만나 강론함(6월)
1755	51	이상정		대산	내방하여 강론함
1756	52	李光漢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물음
		이상정		대산	내방하여 心과 義에 대해 강론
1757	53	李世珩		恕軒	上枝에 가서 찾아 뵙
1758	54	조선직		치재	물함에 가서 조문함
		金江漢	灌以		내방하여 朱書를 강론함
1760	56	최홍건		육와	더불어 朱書를 강론함
		金景澈	幼淸	西坡	(화성현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물음
1766	62	이상정		대산	모친상의 墓幕에 조문함
					金·九思 의 訥音에 곡함
1767	63	최홍건		육와	더불어 大學或問을 강론함
1770	66	송이석		남촌	내방함
1772	68	이광정		소산	내방하여 家禮에 대해 강론함
1779	75	송이석		남촌	北溪精舍에 찾아와 心經을 강론함
1781	77	이상정		대산	부음에 곡하고 3개월 동안 소복을 입음
1782	78	박손경		南野	부음을 듣고 곡함
1784	80	李秉模			(경상감사) 내방함
1785	81	金宗敬			죽음에 곡함
		이명천		운재	내방하여 토론함

백불암의 제자들은 <급문록>에 정리되어 있다.<sup>22)</sup> 이를 지역별, 성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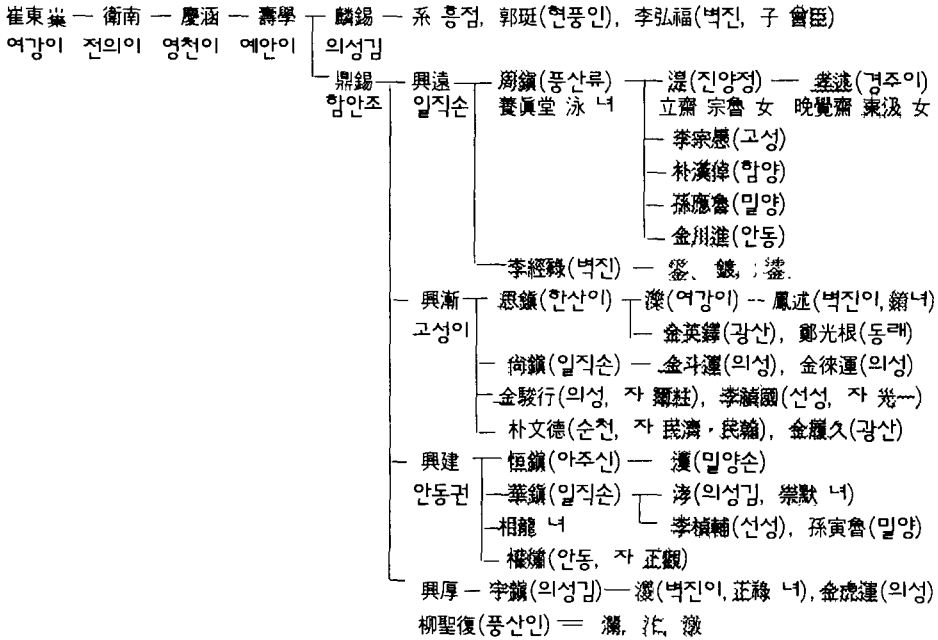
<표 4> 급문록의 지역별, 성관별 분포

지역	합	성씨	인수	지역	합	성관	인수	지역	합	성관	인수		
族親	33	경주최	33	경주	7	오친정	6	단성	6	안동권	3		
대구	11	함안조	3			경주최	1			순천박	2		
		순천박	3			칠곡	13			벽진이	7	팔거도	1
		인천채	1	광주이	3			서울	1	풍양조	1		
		현풍곽	1	동래정	3			현풍	2	현풍곽	2		
		팔거도	1	밀양	7			일직손	2	하양	2	道州金	2
		문화유	1					밀양손	2	영천	2	창녕조	2
		일직손	1					밀양박	1	고령	2	현풍곽	2
안동	21	한산이	7					벽진이	1	성주	1	현풍곽	1
		의성김	5	東陽申	1	거창	1	파평윤	1				
		풍산류	3	의성	5	안동김	4	상주	2	의령남	1		
		선성이	3			광산김	1			진주정	1		
		고성이	2	선산	3	의성김	2	예천	1	함양박	1		
광산김	1	연안이	1			합계	120						

지역적으로는 17개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도 안동이 특히 많으며, 거주지인 대구와 경주, 칠곡, 단성, 밀양 등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경주 최씨의 통훈권이 영남의 유명 사족가문을 망라하듯이, 백불암의 <及門錄>의 제자 범위도 그러하다. 백불암의 <급문록>의 인물을 보기 위해 그 일부를 세계와 관련하여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2) 《연행록》 권 7, <及門錄> 참조.

〈표 5〉 世系와 〈及門錄〉의 인물



비고 : 1) 용형은 <급문록>소재 인물임을 표시함  
 2) 인명 뒤 괄호 속의 기록 (최씨의 경우 : 처의 관향 및 妻父 또는 子, 최씨 이외 : 여서·외손의 관향)

〈급문록〉에 수록된 제자는 통혼권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세 계에서 볼 수 있듯이 백불암의 집안 자체는 물론이고 여서와 외손 또한 거의 대부분이 급문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반대로 백불암의 제자들의 혼인이 사승 관계를 매개하여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부자·형제가 함께 제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튼 조선후기 學脈과 婚脈이 강고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형성된 백불암의 제자는 응집력이 강하여 뒷날 부인동동약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때 영남의 700여 儒林을 대거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sup>23)</sup>

23) 1802년 夫仁洞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달성의 鄉儒 또는 경상도 道儒 700여 명이 감영에 수 차례 걸쳐 소장을 내어 洞約의 존속을 요청하였다. (《영남향약 자료집성》 〈鄉儒狀 : 癸亥9월, 庚寅正月〉, 〈道儒狀 : 甲子10월, 丙寅6월, 丁卯10월〉 61-75쪽,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2) 학문적 특징 : 躬行實踐學

조선시대 양반들은 당연히 유학을 그 본업으로 삼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학자지만, 학자로서의 존재형태는 성취한 학문적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백불암이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문제는 곧 그의 학문적 특징과 직결된다. 순암은 백불암의 학문적 성취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sup>24)</sup>

末學들은 천박하여 다만 입과 귀만 숭상하는데,  
공은 근본을 돌이켜서, 오로지 실천에 힘을 쏟았네.

말하자면 당시 많은 선비들의 학문을 '口耳之學'이라고 한다면, 백불암의 학문은 내면의 수양과 '躬行實踐'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修己治人學'이라고도 하였다. 이 같은 백불암의 학문은 그 자체가 일반 선비들과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와 입으로만 하는 학문을 백불암은 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실천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의 유학자들 학문이 朱子나 退溪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조선 특히 후기의 선비들은 관념적인 차원의 이해에만 급급할 뿐 수양과 실천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백불암은 책을 읽음에도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섭렵함을 일삼지 않았다.<sup>25)</sup>

그럼 백불암이 궁행실천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다. 가령,

“선생의 학문은 그 처음 근원이 孝道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효로써 알려진 사람들이 한가지 착함에 그칠 뿐이었던 것과는 같지 않다. 살아 섬김과 장례·제사 등에 터럭만한 흠결도 없었고, …… 몸을 닦아서 행동이 법

자료집성》〈鄉儒狀 : 癸亥9월, 庚寅正月〉, 〈道儒狀 : 甲子10월, 丙寅6월, 丁卯10월〉 61-75쪽,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4) 주16) 참조

25) 《연행록》 권 2, 〈行狀 : 李光靖 撰〉

도에 합당하게 하였고, 사업을 시작하여 教化가 고을에 미치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 크고 완전한 효도를 이루었다고 한다.”<sup>26)</sup>

효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선비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백불암의 효는 형식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봉제사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심으로 다하여 한 점 흐트러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루어 고을에까지 教化를 미치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크고 완전한 효도 즉, ‘大孝’를 실천한 셈이었다.

그러나 실천을 강조하는 백불암과는 달리 당시의 일반적인 학풍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백불암은 이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래에 책을 읽는 젊은이들은 그 뜻을 반드시 義理를 강구하는데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行身과 言論이 책을 읽지 않은 자와 다를 게 없음을 많이 볼 수 있다.”<sup>27)</sup>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공부란 책을 읽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그러면 책 읽는 젊은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科擧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선비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통한 立身揚名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백불암은 과거에만 몰두하는 세태를 곳곳에서 개탄하고 있다.

“한결같이 孝悌하는 도를 닦기를 기대하였는데 …… 슬하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건데 오로지 時業에만 매달려 이러한 이야기를 귓가의 바람으로 여기니 민망하고 개탄스러운 바이네.”<sup>28)</sup>

“이곳 젊은이들은 時文을 공부하면서부터 그 행동거지와 말 기운에 점차 불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sup>29)</sup>

26) 《연행록》 권 4, 〈學問 : 柳泚〉 165-166쪽.

27) 《문집》 권 3, 서 〈與李景文 : 1759년〉 162쪽.

28) 《문집》 권 6, 서 〈答仲賓養吾興浩士教〉 381쪽.

29) 《문집》 권 3, 서 〈與李景文〉 183쪽.

그래서 과거 공부를 그만 두고 古學을 하는 사람을 극찬하고 있다.<sup>30)</sup> 그렇다고 하여 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었고, 또한 양반으로서의 立身과 揚名을 위해, 그리고 父兄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과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sup>31)</sup> 이러한 사정에서 時文을 지을 때는 근면하게 해야 하고, 또 이로 인하여 근본을 休廢해서도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講學하는 사이에 그 輕重과 本末의 구분을 엄격히 하거나, 매일 아침에 먼저 小學이나 心經 등의 문장을 암송하고 난 뒤에 製述에 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32)</sup>

백불암은 과거의 폐단과 여기에만 몰두하는 당시의 학풍을 개탄하면서도 제도의 개혁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大山 역시 백불암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폐단과 그것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와 아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고, 과거의 폐단을 제도의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고자 하였던 점과는 다르다. 여기서 참고로 대산이 제시한 과거의 폐단과 개혁의 방안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대산은 과거제의 폐단으로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너무 빈번하며, 그 내용이 단순한 암기와 詞章 따위의 末端的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非實用性을 들고 있다. 그래서 과거공부와는 관계없는 학교공부를 통해 실용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관료로 등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실용성 있는 인재란 다름 아닌 灑掃應對와 孝悌忠信, 그리고 六藝에 우수한 자 중에서 德行을 성취하고 才智가 수련된 자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백불암이 강조하고 있던 躬行實踐한 인물과 다르지 않다.<sup>33)</sup>

과거공부와 백불암의 실천학은 사실상 부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단념하였고, 그 폐단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부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과거공부가 주로 암송하거나 製述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데 반해 백불암은 소학의 공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30) 《문집》 권 6, 서〈答仲賓〉 381쪽.

31) 《문집》 권 6, 서〈答仲賓士教興壁〉 377쪽.

32) 《문집》 권 6, 서〈與聖年〉 369-370쪽.

33) 《大山先生文集》 권 42, 雜著〈科學私議〉 참조.

“소학은 한갓 句讀만 할 것이 아니라 立教, 明倫, 敬身 등의 일을 반드시 일일이 身心에 체득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이와 같이 하면 자연히 읽지 않을 때와는 엄청나게 구별될 것이다.”<sup>34)</sup>

“대저 大學을 읽고자 하면 먼저 小學을 읽혀야 하네. 진실로 학문에 성실하려면 모름지기 소학의 일을 자신에게 채우고 난 뒤에라야 格致하는 공부 또한 자기의 심신에 성취하게 된다네.”<sup>35)</sup>

“옛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데에 반드시 차례가 있었다네. 남을 속이고 이름을 흠치기를 면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그 초기에 망령되어 스스로를 高遠하게 여겨서 日用하는 卑近한 곳에 먼저 힘쓰려고 하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진실로 이일에 뜻을 두려면 마땅히 먼저 소학을 읽어서 그 습성이 지식과 더불어 자라고 교화가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妙함을 구하고 난 뒤에 차례대로 대학 논어 맹자에 이르는 것을 그 순서로 삼아야 하네.”<sup>36)</sup>

“(소학에 대해 말하면서) 비록 읽는 것이 두 번 되더라도 思索을 깊게 하여 身心에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름지기 밤에 배운 것을 고요하게 생각하여 日用하는 행사에 證驗하여 현저하게 터득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sup>37)</sup>

소학이란 알고 있듯이 灑掃應對, 즉 일상생활상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것은 字句를 해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sup>38)</sup> 읽어서 思索을 깊게 하여 身心에 體得할 때에만 유용한 것이었다. 소학으로서 자신을 채우고 난 뒤에 대학을 거쳐 논어, 맹자, 중용, 심경, 근사록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학문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1782년에 학당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灑掃應對하는 예절과 이치를 窮究하고 몸을 수양하는 공부”<sup>39)</sup>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34) 《문집》 권 6, 〈答從孫漢〉 454쪽.

35) 《문집》 권 6, 〈答方甫聖年〉 364쪽.

36) 《문집》 권 6, 〈答方甫〉 360쪽.

37) 《문집》 권 6, 〈答兒〉 1738년, 426쪽.

38) 《문집》 권 6, 〈答從孫漢〉 1785년, 453쪽.

39) 《언행록》 권 4, 〈訓學 : 최홍립〉 182쪽.

이러한 소학공부는 곧 그것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의 실천은 내면의 수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면의 수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학문하는 要諦라고 하였다. 그것은 마음은 만사의 줄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면 만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sup>40)</sup>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敬을 제시한다. 마음이 인간의 주인이라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경을 통해서였다. 백불암이 ‘敬牌를 늘 곁에 걸어두고 스스로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臨終時에도 경패에 걸린 옷을 치우라고 할 정도로 경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경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敬은 畏字에 가깝다. 깊은 못에 임하거나 얇은 얼음을 건널 때는 그 마음이 悚然하여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엿보기를 용납하지 않으니, 이런 지경이라면 경자의 뜻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敬에 힘썼다. 舜 임금과 盜跖의 구분이 한 생각에 달려 있고, 하늘과 땅의 바뀔이 터럭만한 차이에서 나온다고 여겨, 조심하고 공경하는 뜻을 잠시도 해이하게 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공부를 미세한 데까지 이르게 했고, 고요함을 주제로 動을 통솔하고, 外行을 제어하여 中心을 길러서, 날이 저물어 편안하게 쉬면서도 게으르지 않았으며, 환난이 갑작스럽게 닥쳐도 당황하지 않았다.”<sup>42)</sup>

전자가 일반적인 敬에 대한 설명이라면, 후자는 백불암의 경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體得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환난에 처해서도 태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비단 백불암에게 있어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密庵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大山에게 “군자가 학문하는 방법은 主敬으로서 그 근본을 세우고, 窮理로서 그 眞理를 이루는 것이 千古의 眞證이요 妙諦”<sup>43)</sup>라고 한 것과도 마찬가지로 었다.

40) 《언행록》 권 2, 〈行狀〉 이광정 찬

41) 《언행록》 권 4, 〈存省 : 최화진〉 176-177쪽.

42) 《언행록》 권 4, 〈學問 : 이경록〉 163쪽.

43) 《대산집》 년보 (19세)

## 4. 백불암의 鄉約

### 1) 실시의 배경

백불암은 1738년(영조 14) 부인동에서 향약을 실시했다. 백불암이 실시한 향약은 그의 실천적 학문을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향약을 凡夫의 효도와는 다를 大孝의 실천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 仁義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유학의 또 다른 측면인 民生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民生의 문제는 당연히 사회개혁적 관심과 직결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백불암의 시대는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백불암이 실시한 향약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백불암이 民生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民生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29세(1733) 때에 경산현 감 嚴慶遐의 荒政韻에 次韻하여 세상을 한탄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뜻을 붙였다거나,<sup>44)</sup> 先山이 있는 廣店洞의 백성들이 부채(扇)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한 것을 알고는 평생토록 부채를 사용하지 않았다<sup>45)</sup>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의 고통을 그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民生에 대한 관심은 백불암만이 아니라 臺巖公에게서도 찾아진다. 즉, 대암공은 <벌꿀부>와 <財用賦>에서 지배층의 사치롭고 화려한 생활과 수령들의 탐학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sup>46)</sup> 그러나 이것의 해결책은 勤儉과 恭儉일 뿐이었다. 백불암 역시 民生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절제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그러나 民生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배층의 사치와 수령들의 탐학 만은 아니

44) 《문집》 권 1, 시 <次嚴慶山慶遐荒政韻 : 癸丑> 47쪽.

엄경하는 당시 연이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홀로 荒政에 治績을 보였다고 한다.

45) 《언행록》 권 5, <雜記 : 曹翰邦> 324쪽.

46) 崔東嶽, 《臺巖集》 권, <蜂蜜賦> <財用賦> 참조.

었다. 백불암의 시대는 여기에 더하여 賦稅의 不均이라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사실 부세의 문제라기 보다는 身分制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18세기 부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軍役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군역은 良役이라고 하듯이 신분제를 토대로 성립된 것이다. 문제는 군역을 담당해야 할 良民層이 여러 방법을 통해 신분을 상승함으로써 역의 부담에서부터 이탈해 버리는 것이었다.

신분상승의 구체적인 방법은 軍官이 되거나, 鄉校의 校生이 되는 것이었다. 군관과 교생 등으로의 避役은 결국 남아 있는 자들의 軍役負擔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군역에서부터 빠져나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逃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sup>47)</sup> 이것은 전사회적인 문제였고, 결국 양반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것은 양반들이 상하신분질서와 지주-소작이라는 경제적인 토대 위에 존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의 혼란과 농민의 도망은 결국 양반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았던 많은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土地나 賦稅제도의 개선이나 개혁, 심지어는 身分의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분제나 법의 강화 혹은 教化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전자를 實學派라 부른다.<sup>48)</sup> 백불암은 후자의 입장이었고, 방법만을 제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즉, 良人이 校生이 되거나 軍官이 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분의 혼란을 막는 동시에 군역 자원을 확보하고, 10家 20家 마다 統長을 두어 統內의 逃亡者를 엄히 단속한 후에 鄉約을 실시하여 孝悌忠信으로 教化하면 常民들은 분수를 지켜 避役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sup>49)</sup> 결국 향약의 실시는 향촌사회에서 양반중심의 신분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길을 같이 하지 않고 늙은이가 짐을 이고 지지 않는다”<sup>50)</sup> 말하자면 三代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47) 《문집부록》 권 2, 〈年譜 上 : 英祖15年己未5月〉

48) 정진영, 1994 〈실학파의 사회개혁사상〉 《淡水》 23

49) 주47) 참조

50) 정진영 외, 《영남향약자료집성》 달성군편 〈夫仁洞誌〉 序

한 것이었다.

## 2) 백불암 향약의 내용

백불암은 1738년(영조 14)에 향약을 실시하였다. 그가 향약을 실시한 곳은 거주지 칠계가 아니라 부인동이었다. 부인동은 당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夫南里, 舞山里, 芹田里 또는 中山里에 해당하며 오늘날에는 夫仁寺 및 新武洞, 龍水洞 일대가 된다. 백불암이 이곳에서 향약을 실시한 것은 5대조 臺巖公이 일찍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향약을 실시했던 곳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곳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부인동민의 신분 상승이나 도망은 곧 최씨의 농업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sup>51)</sup>

백불암이 실시한 향약은 곧잘 중국의 藍田呂氏 또는 朱子增損呂氏鄉約에서 그 典據를 찾는다. 그러나 그 향약 조목은 退溪鄉約을 增補한 北崖 金圻鄉約과 거의 동일하다.<sup>52)</sup> 이것은 백불암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영남지방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향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향약의 조목이 같다고 하여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향약이 일종의 법이고, 규약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사회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는 下位의 절목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백불암의 향약에 있어서 운영절목은 다름 아닌 <講舍節目>(영조 15), <先公庫節目>(영조 29), <郵賓庫節目>(영조 46), <講會時申約>(영조 50) 등이다. 백불암 향약의 특징은 향약의 법조문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또 향약의 실시와 더불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한다.<sup>53)</sup>

강사절목은 約尊과 約直, 里正과 典穀 등의 향약 임원의 선출과 직무, 春秋講

51) 정진영, 1982 <조선후기 鄉約의 一考察> 《민족문화논총》 2.3합집, 참조.

52) 정진영, 1982, 위 논문 참조.

이하 부인동동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여기에 근거하였다.

53) 《문집》 권 7, <夫仁洞洞約> 각 절목 참조.



信時의 座次, 善惡籍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약존과 약직은 양반이 담당하였고, 이정과 전곡은 하층민에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좌차는 강당 위에는 양반의 嫡庶가, 아래에는 常民과 賤民이 구별되게 자리하여 신분의 차별을 엄격히 하였다. 강사절목에서 강조되고 있는 특별한 한 조목은 常漢들이 分外의 職任을 바라거나, 무단으로 이주하거나 도망하고자 할 때 洞中에서 이들의 田土를 賣得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죽기 전에는 결코 마을을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sup>54)</sup> 말하자면 농민들의 移來移去를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약은 실시 당시의 동민들만을 일차적인 구성원으로 하였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원칙적으로 향약의 혜택에서부터 배제되었다. 이것은 향약의 실시 목적이 농민들의 신분상승과 거주지 이동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양반중심 촌락사회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先公庫란 公田을 마련하여 여기서 나오는 소출로 향약에 참여하고 있는 동민들의 公稅(田稅)를 대납하는 것이었다. 공전이란 향약 실시이전부터 유래해 오고 있던 洞畓을 팔아서 이를 殖利하여 얻어진 이익으로 마련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전세의 대납만으로는 농민들을 마을에 緊縛시킬 수가 없었다.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田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극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恤貧庫란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경작할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을 촌락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선공고와 홀빈고를 二庫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또한 흉년에 賑恤하고 喪葬에 부조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공고에서 대납하였던 세금은 전세였을 뿐, 농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던 均역과는 무관한 것이었다.<sup>55)</sup>

이러한 선공·홀빈고는 朱子의 社倉法을 모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磻溪 柳馨遠의 사창법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sup>56)</sup> 그것은 백불암이 선공고를 창안하기 바로 전해인 영조 28년에 《磻溪隨錄》을

54) 《문집》 권 7, 〈講舍節目〉 538쪽. “此死徒 無出鄉之義也”

55) 정진영, 1990 〈18, 19세기 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참조.

56) 하영휘, 앞 논문 참조.

검토하였고, 제자들에게 이를 필사하게 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sup>57)</sup> 아무튼 先公·郵賓 二庫는 백불암의 향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사창법이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향약과 결부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講會時申約은 各守分業과 養親奉公으로 구분된다. 각수분업에서 지켜야 할 '分'은 父子兄弟間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위계질서와 규범이기도 하였지만, 兩班과 民 신분상의 名分이기도 하였다. 지켜야 할 '業' 역시 양반에게는 讀書와 謹身이 常漢들에게는 農事와 織布에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sup>58)</sup> 말하자면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지켜야 할 분수와 역할을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향약의 법조문, 講會時 座次를 통한 양반과 상천민의 엄격한 신분적 구별과 적서의 차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분적 구별과 차별은 지켜야 할 分數와 힘써야 할 業에 있어서도 엄연히 다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반과 상천간의 상하 신분질서의 확립, 적서의 차별은 사실 향약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였던 셈이다.

### 3) 향약을 둘러싼 문제

백불암의 향약은 당시 지식인과 지방관들로부터 稱賞되었다. 이들 가운데서도 부사인 趙載淵, 尹啓東, 崔景興 등과 相國인 李成中, 趙雲達 등은 물질적인 부조나 세금의 감면 등을 주선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領相인 李秉謨는 경상감사로 在職時에 특별히 50餘 苞의 俸廩을 덜어서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백불암의 향약을 언급하여 찬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정조의 관심을 사기도 하였다.<sup>59)</sup>

57) 《문집부록》 권 2, 〈年譜 上 : 영조 25년〉 및 〈年譜 下 : 영조 46년〉 참조.

최홍원은 영조 25년에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읽은 후 제자들에게 베끼게 하였으며, 영조 46년 경상감영에서 간행할 때에는 교정을 보기도 하였다.

58) 《문집》 권 7, 〈講會時申約 : 甲午〉 543쪽.

“各守分業(分 : 父子兄弟兩班凡民, 業 : 讀書謹身耕織以時)”

이로 인하여 1778년(정조 2)에는 경모궁 守奉官과 장릉참봉에 연이어 제수되었고, 다음 해 12월에는 동몽교관, 1782년에는 領相인 서명선에 의해 장악원 主簿로 천거되었다. 그러나 백불암은 한번도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1783년에는 임금이 직접 직급을 올려 부르도록 하여 12월에 공조좌랑, 이듬해에는 翊衛司 翊贊으로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786년에 大索로 통정에 오르고, 1789년에는 정조가 孝行으로 旌門을 내려 표창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백불암과 그의 향약이 국가와 관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장려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백불암 사후 향약의 지속적인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향약이 가지는 문제, 즉 서얼과 하층민에 대한 엄격한 신분적 규제, 선공고에서 전세만을 대납하며, 또 새로운 이주자들의 증가 등에서 비롯하고 있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에서 하층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18세기이후 농촌사회는 한편에서는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농민을 몰락시키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饒戶라는 富農層의 출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부인등은 대도회인 대구에 인접함으로써 이러한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숙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농층이 상천민이라는 신분적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들의 부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엄격한 상하신분질서의 확립을 전제로 한 향약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점은 서얼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였다. 사실 경상도에서 그리고 양반고을에서 서얼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하였다. 서얼은 가문에 따라서는 수적 또는 학문적, 경제적인 면에서 적손 못지 않은 기반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18세기 이후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영조 48년에는 경상도의 서얼유생 3천여 명이 庶孽許通을 위한 집단 상소를 하기도 하였다.<sup>60)</sup> 결국 정조대에 이르러서 서얼은 중앙의 관직에서는

59) 정진영, 1982, 1990, 앞 논문 참조.

아래의 일반적인 서술도 위 논문에 의거하였다.

60) 《영조실록》 권 119, 영조 48년 12월 무자조. 〈慶尙道庶孽儒生全聖天等上疏〉

물론이고 향촌에서의 序齒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향약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이들 서얼과 부농층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향약의 체제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들은 때로는 선공고에 균역의 부담을 요구하여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이주자들과 연합하여 향약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하층민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선공고와 홀빈고가 파기되기도 하였고, 백불암의 本家が 부인동에서 罷籍되어 향약이 더 이상 실시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가와 영남 유림의 적극적인 대응, 경상감사와 대구부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 후에도 상당기간 향약은 운영될 수 있었다.

아무튼 백불암의 향약은 향촌사회에서 儒敎的 윤리의 실천과 相扶相助 등 일반적인 향약의 규약 외에도 田稅를 대납하고, 무전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을 百弗庵의 학문과 관련짓는다면 바로 躬行實踐學을 구체적으로 사회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를 大孝의 실현 仁義의 발로라고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 양반지배층이 그들 중심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유교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절실한 바램과 기대를 부분적으로는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불암의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개혁은 아니었다. 따라서 향약은 불가피하게 그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하층민들이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층민들은 양반들만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경주 최씨가 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 경 백불암의 11대 조 孟淵 代부터였다. 최씨는 대구로의 이주 이후에도 꾸준히 중앙과 지방관으로 진출하였고, 상당한 경제적 기반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함께 台洞 崔誠의 壬亂 義兵활동, 臺巖 최동집의 大君師傅와 崇禎處士로서의 '명예', 그리고 영남 명문가와의 혼인 등은 백불암 이전에 최씨가 이미 대구는 물론이고 영남의 양반사회에서 구축한 학문적·사회적 기반이었다.

백불암은 일찍이 생원 초시에 합격한 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 그것은 과거공부가 암기와 詞章 따위의 말단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학문적인 경향 때문이었다. 백불암은 평생을 팔공산 아래 칠계에서 은거하면서 수양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모든 것을 터득해 나갔다. 이 같은 백불암의 학문은 '躬行實踐學', 또는 '修己治人學'으로 평가된다.

실천은 내면의 수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 敬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갑작스런 환난에 처해서도 태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아무튼 백불암의 학문은 '躬行實踐學'으로 뚜렷히 위치 지워지며, 따라서 '嶺南의 三老'로 추앙되거나, '經濟之士'로 평가되었다.

백불암은 스승을 가지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을 사숙할 뿐이었다. 그는 안동과 도산서원 등을 방문하거나 참배하였고, 大山 李象靖과 小山 李光靖 형제, 致濟 曹善迪 등과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이들과는 상호 중첩적인 師承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백불암이 사숙한 인물은 퇴계학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학문적인 계보 또한 여기에 위치 지워 질 수 있다.

백불암은 1738년(영조 14)에 부인동에서 향약을 실시하였다. 당시 농촌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민들이 여러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도망이라는 방법으로 농촌에서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어느 경우나 상하신분질서와 지주-소작의 경제적 관계 위에 존립하고 있었던 향촌사회 양반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백불암은 향약의 실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백불암의 향약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양반과 서얼, 상천민들간의 상하신분질서를 엄격히 하고, 농민의 移來移去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만으로는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 세금 일부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토지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향약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백불암의 향약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朝廷과 國王 正祖에게도 알려져 크게 稱賞되었고, 또 수차에 걸친 관직의 제수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백불암은 '學行과 經濟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백불암의 향약에 대한 국가적인 공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백불암 사후 향약의 계속적인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향약이 근본적으로 양반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신분질서의 확립과 농민의 촌락 緊縛을 엄격히 강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얼의 許通과 許淸運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富農層의 신분상승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농민의 移來移去도 일상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향약에 대해 큰 桎梏과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하층민들이 향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향약의 실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백불암의 학문은 退溪學脈 속에서 躬行實踐學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며, 이 같은 실천은 가정과 학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향약의 실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체화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백불암의 학문과 향약을 당시의 선비들은 '大孝'를 실천, 또는 '經濟의 大綱' 등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백불암은 양반지배층이 그들 중심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유교적인 理想社會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절실한 바램과 기대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불암의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양반들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改革이었다. 따라서 향약은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하층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세기의 하층민들은 양반들만의 이상사회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